

# 해리스, 美민주 대선후보 확실히시...트럼프는 공세 강화

### 잠재적 경쟁후보 이어 펠로시도 지지...교통정리 '수순' 당 최고지도부 중립...후보선출 필요 대의원 수 과반 확보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하루만인 지난 22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것으로 사실상 확실히되고 있다.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의 절반이 넘는 대의원을 이미 확보하는 등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도전에 대한 당내 지지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여기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잠재적 경쟁자들도 지지 행렬에 동참, 당내 뚜렷한 다른 유력 예비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당 원로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까지 가세하고 정치 자금 후원도 쏟아지면서 민주당이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대관식을 피하고 약식으로라도 경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 일각에서 계속 나오면서 실제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확정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펠로시 전 의장은 이날 "거대한 자금심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낙관론으로 나는 해리스 부통령을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전 의장은 당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대타로 거론됐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피트 부티지 교통부장관 등에 이어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J.B. 프리츠키 일리노이 주지사 등도 공개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다. 여기에 당내 중진 의원, 흑인·히스패닉 의원 모임 등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처럼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빌 클



대선 후보 후보에 나선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정원에서 열린 미국대학스포츠협회 우승팀 축하 행사에서 활짝 웃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린턴 전 부통령 부부에 이어 당 원로, 주요 경쟁 후보가 이날 잇따라 지지 대열에 합류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문제가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이다.

선거캠프를 꾸리는 등 본선 대결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해리스 부통령은 실제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의 지지도 신속

하게 확보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는 여전히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경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 등을 고려해 내달 초에 온라인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내에서 대세론을 형성하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후보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며 끔찍하고 무능한 국경(담당) 차르인 카말라라는 더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가짜뉴스들이 돌처럼 멍청한 카말라 해리스를 완전히 실패하고 허찮은 부통령에서 미래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 후보는 이날 자신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마들타운에서 개최한 첫 단독 유세에서 민주당 엘리트들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대통령을 버렸다고 비판하면서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바이든 사퇴, 기시다에 불똥?...“바꾸자” 목소리 더 커질 수도

### 9월 총재선거 기시다...美처럼 日의원들도 선거앞뒤 지지율 불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가 오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 본 총리의 거취 압박을 더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22일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

지정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의 유사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결정으로 일본 정계에 작은 물결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한 각료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양국의 유사한 정치 상황으로 11월 미 대선에 상하원 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진 것처럼 일본도 내년 중의원(하원)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데다 참의원(상원) 의원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내각 지지율 저하에 위기감을 느낀 자민당에서 퇴진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

가왔지만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다시 출마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민당 내에서는 불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서서히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바꾸면 좋겠다는 소리가 자민당에서 한층 더 강해지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오는 11월 대선까지 3개월간 미일 동맹을 둘러싼 협력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과 러시아는 빈틈이 생길 경우 흔들기를 시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처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레임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동맹국 결속을 중시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이 공동보조를 위한 외교정책들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다만 이 신문은 "일본은 대선에서 어느 쪽이 승리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며 "지난 4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방위비 증액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에서 순찰하는 병사들. /AFP=연합뉴스

## 佛, '올림픽 방해 우려' 위험인물 4천여명 특정

### 경찰·헌병 100% 동원...개막식 당일 상공 보안 조치

프랑스 당국이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대회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 4천명 이상을 특정하는 등 보안 조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계당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올림픽 관련자 100만명가량을 행정 조사한 결과 올림픽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4천355명을 걸러냈다고 밝혔다.

이번 보안 점검은 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코치, 기자, 자원봉사자, 민간 보안 요원을 비롯해 행사장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이뤄졌다.

4천355명 가운데 880명은 내정 간첩 의심자, 300명은 추방 대상자, 142명은 잠재적 테러 위험인물로 정부 관리 대상(S리스트)에 오른 이들이다. 또 급진 이슬람주의자가 200명, 극좌·극우 성향의 인물도 각각 185명, 93명이 포함됐다. 프랑스 당국은 올림픽 기간 매일 3만명의 경찰과 헌병을 파리에 배치한다. 개막식 등 중요 행사가 있는 날에는 4만5천명이 거리 곳곳을 지킨다. /연합뉴스

## 중서 박사과정 학생 “지도교수가 성희롱” 파문

중국 명문대인 인민대 박사과정 여학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도교수가 성희롱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

다고 AP 통신이 지난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인민대학교에서 공부한 왕디라고 밝힌 이 여학생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린 50분 짜리 영상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잠깐 들어 올려 보여준 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했다. 마스크를 쓴 채 영상에 나온 왕디는 인민대의 전 부학장이자 전 공산당 대표였던 자신의

지도교수가 물리적, 언어적으로 성적 인 괴롭힘을 가했고 성적 접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사학위 취득을 막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민대는 폭로 하루 만에 이 교수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